

Collection 1 **Collection 2** Collection 3
November 1, 2025–February 15,
2026 |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馆藏展1 馆藏展2 馆藏展3

2025年11月1日^{周六}–2026年2月15日^{周日}

컬렉션1 컬렉션2 컬렉션3

2025년11월1일^토–2026년2월15일^일

主办 国立国际美术馆 | 주최 국립국제미술관
赞助 大金工业现代美术振兴财团 | 후원 다이산공업 현대미술 진흥재단
策划 安来正博 (国立国际美术馆研究员) | 기획 야스기 마사히로 국립국제미술관 구원

작가명 작가명	생卒年份 생물년도	작품명 작품명	制作年代 제작년도	技·材·支 기법 및 재질	尺寸 사이즈
------------	--------------	------------	--------------	------------------	-----------

21世纪的想象力 | 21세기의 상상력

1. 变化的世界的意象 | 변모하는 세계의 이미지

维克·穆尼斯 빅 유니즈	1961	玩具的军队 장난감 병정	2003	发色印刷 발색현상방식인화	125.5 × 100 cm
马莱内·杜马斯 마를렌 뒤마	1953	祖父与孙女 할아버지와 손녀	2003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200 × 100 cm
安东·亨宁 안톤 헤닝	1964	花的静物 No. 237 꽃 정물 No.237	2004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213.5 × 183 cm
米利亚姆·卡恩 미리암 칸	1949	主楼和附属建筑 본관과 별관	2005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130.5 × 185.7 cm
孫原&彭禹 순위앤&펑위	1972/1974	I am here	2007	综合媒材 믹스드 미디어	188 × 105 × 82 cm
史蒂芬·巴尔肯霍尔 슈테판 발켄홀	1957	建筑物、菲尔巴赫 건축물, 펠바흐	2007	阿尤斯板材、彩色 채색된 나무	299.5 × 101 × 4.5 cm
文·沃姆 에르빈 부름	1954	无题 무제	2008	衣服、木、丙磷酸树脂 의복, 나무, 아크릴 수지	132 × 27.5 × 27.5 cm
瓦达·卡瓦诺 바르다 카이바노	1971	无题 무제	2009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87.1 × 57.5 cm、84 × 60.0 cm (2 pieces)
乔尔杰·奥保特 조르제 오즈볼트	1967	见到你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	2009	丙烯酸颜料、板 아크릴, 나무판	110 × 100 cm
奥斯卡·图阿松 오스카 투아존	1975	White Steel	2010	铝、发色印刷、喷漆 알루미늄, 발색현상방식인화, 스프레이	180 × 119 × 65 cm
理查德·塔特尔 리차드 터틀	1941	场所1 장소1	2013	染料、棉、金属丝网 염료, 면, 와이어 메시	40 × 23 × 8 cm
		场所3 장소3	2013	染料、棉、金属丝网 염료, 면, 와이어 메시	55 × 38 × 12 cm
		场所11 장소11	2013	染料、棉、金属丝网 염료, 면, 와이어 메시	64 × 31 × 9.5 cm
		场所15 장소15	2013	染料、棉、金属丝网 염료, 면, 와이어 메시	59.5 × 32 × 11.5 cm
理查德·阿尔德里奇 리차드 올드리치	1975	无题 무제	2015	油彩、蜡、镶板 유채, 왁스, 판넬	48.3 × 33 cm
曹斐 차오 페이	1978	套娃宇宙01 마트료시카 버스 01	2022/23	喷墨印刷 잉크젯 프린트	104.4 × 156.3 cm
		套娃宇宙02 마트료시카 버스 02	2022/23	喷墨印刷 잉크젯 프린트	104.2 × 156.3 cm
		套娃宇宙04 마트료시카 버스 04	2022/23	喷墨印刷 잉크젯 프린트	104.4 × 156.3 cm
		套娃宇宙06 마트료시카 버스 06	2022/23	喷墨印刷 잉크젯 프린트	104.3 × 156.3 cm
		套娃宇宙12 마트료시카 버스 12	2022/23	喷墨印刷 잉크젯 프린트	104.3 × 156.2 cm
		套娃宇宙16 마트료시카 버스 16	2022/23	喷墨印刷 잉크젯 프린트	104.4 × 156.3 cm

2. 平凡日常的背面 | 평범한 일상의 이면

小川信治 오가와 신지	1959	阿杰特项目1 아제 프로젝트 1	2004	铅笔、纸 연필, 종이	76 × 56 cm
		阿杰特项目2 아제 프로젝트 2	2004	铅笔、纸 연필, 종이	56 × 76 cm
小林孝亘 고바야시 다카노부	1960	Bus (Red)	2000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80 × 75 cm
		Truck (with Green hood)	2000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65 × 60 cm
		Wagon	2000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57 × 57 cm
		Car (Blue)	2000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30 × 50 cm
		Taxi	2000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35 × 48 cm
正木隆 마사키 다카시	1971	2004	造形01-15 조형 01-15	油彩、棉布 유채, 면포	130.5 × 194 cm
高柳惠里 다카야나기 에리	1962	杯子和铅笔 컵과 연필	2002	杯子、铅笔、铁丝 컵, 연필, 철사	10 × 8 × 16 cm
		枝条 작은 나뭇가지	2002	枝条、粘合剂和油灰 나뭇가지, 접착제, 퍼티, 채색	10 × 4 × 3.5 cm
Mr.	1969	Untitled (筷子套里的女孩) Untitled(젓가락 봉지의 여자아이)	2002	水彩、纸 수채, 종이	19.1 × 3.3 cm
森千裕 모리 지히로	1978	冷冷的头 차가운 머리	2003	墨水、纸 잉크, 종이	17.6 × 25.1 cm
须田悦弘 스다 요시히로	1969	杂草 잡초	2006	木、彩色 나무, 채색	Dimensions Variable
长谷川繁 하세가와 시게루	1963		2006	油彩、棉布 유채, 면포	194 × 162 cm
田中功起 다나카 고키	1975	简单的手势和临时的雕塑 단순한 제스처와 임시적인 조각	2008	单频道视频 (高清、彩色、有声) 싱글 채널 비디오 (HD, 컬러, 사운드)	3'26"
伊庭靖子 이바 야스코	1967	Untitled	2012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162 × 194 cm

작가명 작가명	생卒年份 생물년도	작품명 작품명	制作年代 제작년도	技·材·支 기법 및 재질	尺寸 사이즈
藤原康博 후지와라 야스히로	1968	迷宮：沿着记忆的山脊行走 미궁—기억의 능선을 걷다—	2021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194 × 259.3 cm
今井丽 이마이 우라라	1982	MUTINY	2023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194 × 162 cm

3. 超越高原 플래토의 저편으로					
丸山直文 마루야마 나오후미	1964	Butterfly Song	2004	丙烯酸料、棉布 아크릴, 면포	260 × 260 cm
棚田康司 다나다 고지	1968	积雨云的少年 소나기구를 소년	2007	玉兰木, 颜料 박나무, 채색	159 × 48 × 45 cm
小泽沙加耶 오자와 사카에	1980	世界的秘密是蜂蜜的滋味 세계의 비밀은 꿀처럼 달다	2008	油彩、棉布 유채, 면포	150 × 455 cm
中山玲佳 나카야마 레이카	1974	Safarism-Zebra	2008	丙烯酸料、铅笔、画布 아크릴, 연필, 캔버스	137 × 260 cm
杉门洋 스기토 히로시	1970	lesson1	2009	丙烯酸料、颜料、画布 아크릴, 안료, 캔버스	280 × 383 cm
津上Miyuki 츠가미 미유키	1973	View - at 11:15 am., 30 Mar., 06-09	2009	颜料、明胶、丙烯、其他、画布 안료, 아교, 아크릴, 그 외, 캔버스	162 × 259 cm
山本桂辅 야마모토 게이스케	1979	无题 무제	2009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227.3 × 182 cm
鬼头健吾 기토 겐고	1977	cosmic dust red (Frank Lloyd Wright)	2011	亮片、油彩、画布 반짝이, 유채, 캔버스	180 × 380 cm
今井俊介 이마이 쉰스케	1978	untitled	2022	丙烯酸料、画布 아크릴, 캔버스	210.5 × 550.6 cm
横山奈美 요코야마 나미	1986	Shape of Your Words – T.K. –	2023	油彩、麻布 유채, 리넨	182 × 229 cm

馆藏精选 컬렉션 하이라이트						
保罗·塞尚 폴 세잔느	1839	1906	宴会的准备 연회 준비	c.1890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45 × 53 cm
马克斯·恩斯特 막스 에른스트	1891	1976	灰色的森林 회색 숲	1927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80 × 100 cm
约瑟夫·康奈尔 조셉 코넬	1903	1972	无题 (北旅馆) 무제(북부 호텔)	1950s	综合媒材 믹스드 미디어	43.2 × 25.1 × 8.9 cm
尼古拉斯·斯达尔 니콜라 드 스탈	1914	1955	阿格里真托的山岗 아그리젠토의 언덕	1954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60.6 × 81.1 cm
让·阿尔普 장(한스)아르프	1886	1966	杯或果实 컵 혹은 과일	1960	青铜 브론즈	115 × 45 × 39 cm
安迪·沃霍尔 앤디 워홀	1928	1987	4英尺的花 4피트의 꽃	1964	丝网印刷、画布 실크 스크린, 캔버스	122 × 122 cm
琼·米歇尔 조안 미첼	1925	1992	眺望 II 조망 II	1966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55 × 46.5 cm
河原温 가와라 온	1932	2014	JUNE 23, 1980, 出自Today系列 (1966-2013) JUNE 23, 1980, Today시리즈 (1966-2013) 에서	1980	丙烯酸料、画布、报纸、盒子 아크릴, 캔버스, 신문, 종이 상자	45.5 × 61 cm
	1932	2014	MAY 12, 1980, 出自Today系列 (1966-2013) MAY 12, 1980, Today시리즈 (1966-2013) 에서		丙烯酸料、画布、报纸、盒子 아크릴, 캔버스, 신문, 종이 상자	Dimensions Variable
约瑟夫·博伊斯 요제프 보이스	1921	1986	小型发电厂 작은 발전소	1984	铜、铁、不织布 구리, 철, 펠트	183 × 183 cm
艾格尼丝·马丁 아그네스 마틴	1912	2004	无题 #10 무제 #10	1988	丙烯酸料、铅笔、画布 아크릴, 연필, 캔버스	9.4 × 23.5 × 24 cm
小野洋子 오노 요코	1933		忘掉吧 잊어라	1988	青铜 브론즈	91.2 × 122.3 cm
艾米丽·卡莱·肯瓦芮 에밀리 카메 쿵와레에	c.1910	1996	我的故乡 나의 고향	1993	丙烯酸料、画布 아크릴, 캔버스	14 × 20.3 × 13.7 cm
谢莉·莱文 셰리 레빈	1947		黑色的新生儿 블랙 뉴본	1994	玻璃 유리	111 × 150 × 210 cm
矢延宪司(Kenji Yanobe) 야노베 겐지	1965		原子汽车 (黑) 아톰 카(블랙)	1998	盖革计数器、增强复合材料、发动机、其他 가이거 계수기, F.R.P., 모터 등	38 × 38 cm
罗瑞塔·卢克斯 로레타 룩스	1969		爱尔兰的少女们 아이랜드 소녀들	2005	依尔福反转直印相纸 일포크롬 프린트	38 × 42 cm
吕克·图伊曼斯 룩 튀망	1958		教会 교회	2006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24.4 × 18 cm
米凯尔·博伊曼斯 미카엘 보레만스	1963		Automat (3)	2008	油彩、木 유채, 나무	24.4 × 18 cm
			The Trees	2008	油彩、画布 유채, 캔버스	50 × 42 cm
金明博 김 범	1963		无题 (树木) 무제 (수목)	2016	蕉麻与棉的混合浆包裹的物体、木制底座 아바카와 코튼펠프로 싼 오브제, 나무 받침대	Dimensions Variable
村上隆 무라카미 다카시	1962		727 FATMAN LITTLE BOY	2017	丙烯酸料、画布、铝制画框 Background in collaboration with MADSAKI 아크릴, 알루미늄 프레임에 마운트된 캔버스 Background in collaboration with MADSAKI	300 × 450 cm
玛丽亚·法拉 마리아 파라	1988		带露台的房间 테라스가 있는 방	2021	油彩、麻布 유채, 리넨	179.8 × 130 cm
索菲普·皮奇 솜핍 피치	1971		夜曲 no.1 야상곡 no.1	2023	竹、藤、不锈钢、油墨 대나무, 라탄, 스테인리스 스틸, 유성 잉크	201 × 203.5 × 16.5 cm
莫琳·加拉斯 모린 갈레스	1960		八月下旬 8월 말	2024	油彩、板 유채, 나무판	28.2 × 30.7 cm

作家名 작가명	生卒年份 생물년도	作品名 작품명	制作年代 제작년도	技·材·支 기법 및 재질	尺寸 사이즈
常设展示作品 상설전시작품					
亚力山大·考尔德 알렉산더 칼더	1898	1976 伦敦 런던	1962	铝、钢铁、彩色 알루미늄, 스틸, 채색	450 × 990 cm
马里诺·马里尼 마리노 마리니	1901	1980 舞者 댄서	1949	青铜、彩色 브론즈, 채색	174 × 48 × 42 cm
亨利·摩尔 헨리 무어	1898	1986 刀锋 나이프 엣지	1961/76	青铜 브론즈	358 × 140 × 120 cm
胡安·米罗 호안 미로	1893	1983 纯真笑容 순진무구한 웃음	1969	陶板 (640块) 세라믹 판 (640장)	500 × 1200 cm
高松次郎 다카마츠 지로	1936	1998 影 그림자	1977	丙烯颜料、画布 아크릴, 캔버스	300 × 1245 cm
须田悦弘 스다 요시히로	1969	郁金香 튤립	2006	木、彩色 나무, 채색	Dimensions Variable
马克·曼德斯 마크 맨더스	1968	干土的头部 마른 점토의 두상	2015-16	青铜、彩色 브론즈, 채색	233 × 283 × 155 cm

21世纪的想象力

安来正博 | 国立国际美术馆研究员

本世纪即将过去四分之一。遥想上个世纪,在那激荡的20世纪即将终结的时刻,能够预见新世纪美术将会如何展开的人,恐怕是寥寥无几。21世纪伊始,接连发生了美国九一一袭击事件、雷曼危机等全世界的人们无法预料的事件,人们的价值观和世界观,也随之经历了无法想象的巨变。

但如今,我们得以亲眼见证,这一时代诞生的诸多作品。回顾这25年来的美术创作,也可说是确认人类新千年之第一步的一种方法。通过在美术中发现世界、在世界的面貌中看到美术,我们可以思索现在身在何处,以及未来又会走向何方。本次展览正是为了给观众提供这样的契机而策划的。

1. 变化的世界的意象

进入21世纪以来,在全球化的加速、科技的进步以及对社会问题关注的不断高涨等背景下,世界现代美术呈现出前所未有的多元与复杂。曾在20世纪盛行的主流风格、“某某主义”之类的标签早已失去了效力。美术的潮流和趋势也随着这25年世界的变化发生了翻天覆地的改观。各国城市举办的艺博会和国际展览受到广泛瞩目,全球化的浪潮中也出现了,在小区域和共同体里的活动得到认可的现象。信息虽可瞬间越过国界,但真正的信息发源地,有时反倒成了封闭的“艺术世界”。

市场获得重大的地位也可以理解为同样的现象。曾几何时,美术以其美学和文化价值作为评价标准,但现如今,已被视为金融资产,成为富裕阶层的投资对象。金钱价值甚至成了衡量作品优劣的指标。作品也日益追求观者思考,或让观众参与创作,甚至直接成为作品的一部分。随着作品观念性、信息性逐渐被重视,作品的完成度和美学价值似乎反而不像以前那样被看重了。

本章节介绍的作品,同样和当代美术的这一趋势密不可分。如理查德·塔特尔利用金属丝网创作的作品,以及欧文·沃姆为雕塑穿上衣服的独特表现,都反映出当今美术独一无二的特点。在人类失去了坚实生存基础的现代,我们所看到的世界和自身形象,已非昔日所能比拟。这些作品投射的正是这个变化莫测的世界形象。

2. 平凡日常的背面

在物质变得更加富足的现代社会,人们却被认为失去了生活的意义和人生的目标。在某种绝对价值或叙事崩塌之后的时代,仅仅剩下了那条漫长且几乎无尽延续的“日常”之路。

自2000年以来,日本某些当代艺术逐渐脱离了传统美术史的框架,转向追求个人价值观的表达,或者更加重视与社会的关系。尤其是在许多年轻艺术家的作品中,我们常常可以发现,那些容易被淹没的日常性,或在孤立无援的时光里,为了建立与他者关系的卓越视角与创意。伊庭靖子所描绘的咖啡杯,以及今井丽色彩斑斓的玩具画作,都不是宏大的装置,而是作为普通日常风景,存在于细腻而微小的事件与事物中。

例如,如果说一些艺术作品关注战争、气候变化、经济差距等宏大议题的话,那么须田悦弘创作的脚下生长的小草,或藤原康博表现的让人联想到布料褶皱的画作,则诉说另一种立场。它们表面上只是微不足道的、极其细小的世界片段,然而正因为如此,它们才未被世事流转所冲击,坚定地立足于大地之上,展现出自身的真实与坚韧。

回顾起来,始于大约20世纪80年代的后现代主义文化潮流,也对世界的现代美术产生了巨大的影响。且深受其影响的日本现代美术,在之后四十余年中,也经历了各种变革并不断发展。到了2000年以后,多样性更为显著,虽然大规模的运动变得淡化,但可以说,表现的可能性反而变得更加广阔了。

3. 超越高原

说年轻人已失去了对未来的希望, 已经成了老生常谈。可以说, 直到日本高速增长期的1970年代前期, 大多数年轻人都深信明天会比今天更好。这一切却在80年代被称为“新人类”的一代出现时渐起变数, 21世纪初, 这种意识变化已成定局。

实际上, 这正好与19世纪至20世纪后半人类历史加速展开的“近代(现代)”结束的进程相重合。随着世代和亲子间价值观差异的缩小, 被称为“友爱家庭”或“朋友式亲子”的新型人际关系逐渐形成, 其背景是社会变迁趋缓, 整体进入停滞期所致。

而将这一切放到艺术领域, 21世纪以来, 与每十年就发生一个突变的20世纪相比, 变化速度开始趋缓。而利用数字电子技术的美术则另当别论, 如今依然多元且富于创新, 未来的发展空间依然是未知数。

那么绘画怎样呢? 或者雕塑呢?

比如, 棚田康司的雕塑或横山奈美的绘画在探索某种现实主义; 同时鬼头健吾、津上美雪等则尝试新的抽象画形式。然而“新表现主义”、“模拟主义”等曾在三十年前风靡一时的现象, 在近二十五年也已不复见。个别艺术家们更重视个性和独创性, 而非共性。现今, 我们面前展开的是无尽的地平线, 人类抵达的新高原。那么, 未来的画家们将在这片高原上描绘什么, 又将走向何方呢?

译者: 杨冰

21세기의 상상력

야스기 마사히로 | 국립국제미술관 연구원

이번 세기도 어느덧 4분의 1이 지나가려 하고 있다. 격동의 20세기가 끝나가던 무렵, 다가올 새로운 세기의 미술이 과연 어떤 전개를 보일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21세기가 미국의 9·11 테러나 리먼 쇼크 등 인류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막을 올리면서,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 또한 이후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더불어 뜻밖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작품들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5년간의 미술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곧 인류의 새로운 천년기의 첫걸음을 확인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 속에서 세계의 모습을, 세계 속에서 미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지평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전시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1. 변모하는 세계의 이미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현대미술은 급속한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과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20세기까지의 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주류 양식이나 ‘~리즘’, ‘~주의’와 같은 구분은 이제 더 이상 유효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의 경향이나 유행 또한 지난 25년간의 세계적 변화와 연동하여 완전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도시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와 국제전이 큰 주목을 받으며 세계화가 진전되는 한편, 작은 지역이나 커뮤니티 단위의 활동이 새롭게 평가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는 순식간에 국경을 넘지만, 그 발신지가 되는 곳은 오히려 폐쇄적인 ‘아트 월드(art world)’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마켓이 큰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도 같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술이 심미적·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이제는 금융 자산으로서 부유층의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며, 금전적 가치가 작품의 우열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미술 자체도, 보는 이의 사고를 자극하거나, 감상자가 작품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혹은 작품의 일부로 관여하는 형태의 작품이 늘어나면서, 컨셉과 메시징성이 중시되는 것에 비례하여, 작품의 완성도나 미적 가치는 예전만큼 중시되지 않게 된 듯하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작품들 역시 이러한 현대미술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와이어 메시(wire mesh)를 활용한 리처드 터틀(Richard Tuttle)의 작품이나, 에르빈 부름(Erwin Wurm)이 의류를 입힌 조각 등은, 그 유일무이한 특수성 자체가 오늘날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확고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현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도, 우리 자신 또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이 투영된 작품들이 바로 본 장에서 다루는 작품들이다.

2. 평범한 일상의 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진 현대.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보람과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고들 말한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서사가 붕괴된 이후의 시대, 그곳에는 아득할 만큼 끝없이 이어지는 ‘일상’이라는 하나의 길만이 길게 뻗어 있을 뿐이다.

2000년 이후의 일본 현대미술 중에는, 기존의 미술사적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표현이나 사회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의 작품 중에는 자칫하면 묻혀버릴 듯한 일상 속에서, 혹은 고립되기 쉬운 시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탁월한 시선과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바 야스코(伊庭靖子)가 그린 커피컵, 그리고 이마이 우라라(今井麗)의 익숙한 장난감들로 가득한 그림은 결코 대담하거나 거창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아주 섬세하고 사소한 사건이나 사물 속에 숨겨진, 평범한 일상의 풍경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 기후변화, 경제적 격차와 같은 거대한 주제에 대해 발언하는 미술이 있다면, 그 한편에는 발밑에 자란 작은 잡초를 조각하는 스다 요시히로(須田 弘)의 작품이나, 구겨진 시트에 자

신의 마음을 담은 후지와라 야스히로(藤原康博)의 그림이 있다. 이 작품들은 언뜻 보기에 하찮고 너무도 작은 세계의 단편에 불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대지 위에 자신의 발로 서 있는 확실함과 강인함이 존재한다.

돌이켜보면, 대체로 1980년대에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의 흐름은 세계 현대미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을 받은 일본 현대미술 역시 지난 40여 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다양성이 한층 심화되는 한편, 거대한 운동으로서의 흐름은 희박해졌지만, 표현의 가능성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플라토의 저편으로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들 한다. 아마도 일본의 고도성장기였던 1970년대 전반까지는, 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신인류(新人類)’라 불리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 무렵부터, 그 분위기는 서서히 불안한 기운을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설 즈음,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인류 역사 전개의 속도가 가속화되었던 19세기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이른바 ‘근대(모던)’라 불리는 시대의 종언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의식 차이가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되고, ‘우애 가족’ 혹은 ‘친구 같은 부모 자식 관계’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세상의 변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사회 전체가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미술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10년 단위로 눈부시게 변화했던 20세기 같은 양상이, 확실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미술이라면, 오늘날 매우 다양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분야에 한해서는 앞으로의 전개가 아직도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화는 어떨까? 혹은 조각은 또 어떤가?

다나다 고지(棚田康司)의 조각이나 요코야마 나미(山奈美)의 회화가 일종의 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있는 한편, 기토 겐고(鬼頭健吾)나 츠가미 미유키(津上みゆき)와 같은 작가에게서는 새로운 추상회화의 시도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신표현주의’나 ‘시물레이션리즘’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이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지난 4반세기 동안 이러한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각의 작가들은 공통성보다는 오히려 개성과 독자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끝없는 지평이 펼쳐져 있다. 그것은 인류가 마침내 도달한 하나의 플라토(plateau)이다. 그곳에서 앞으로 화가들은 무엇을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